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30만명대

올해 6월 기준 30만6000명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75만3000명으로 확인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 상반기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수는 30만6,000명으로 확인됐다. 2007년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13년 만에 3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514만명에게 11조 9,500억원(매월 1조9,9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특례·분할 제외)은 53만6,000원이며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2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75만3,000명, 평균연금액은 93만 원으로 확인됐다. 2015년도 32만 2,500명 대비 2.3배 늘어났으며 전체 수급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17.7%로 2015년도 10.2% 보다 7.5%p 증가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147만5,000명으로 3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로 남성 수급자의 증가율(28.4%)보다 높게 집계됐으며, 여

성의 사회활동 증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9만4,399쌍(78만8,798명)이며,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연금액은 365만 8,000원에 달한다. 부부 합산 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부부 수급자는 총 9만4,849쌍(24.3%)으로, 이들 중 2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연금 수급자는 총 2,745쌍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생명 '모바일창구 앱' 메인 개편... 고객중심 UI 설계

NH농협생명(전북총국장 이숙)은 쉽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협생명 모바일 창구 앱 UI/UX(User Interface/User Experience)를 전면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창구란 고객이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농협생명은 '혁신적 고객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금번 UI/UX 개편을 추진했다. 주요 특징은 ▲메인화면 UI/UX 전면 개편 ▲메뉴검색 신설 ▲금액입력 단축버튼 신설이다. 메인화면 UI/UX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검색창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아이콘을 전면배치해 보다 편리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입출금서비스의 금액입력창에 단축버튼을 추가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숙 총국장은 "이번 모바일창구 개편은 당사 고객패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고객중심의 애플리케이션 설계와 다양한 보편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객사랑을 실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금융시장 디지털 가속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전용 신상품 'JB 위풍당당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 중·서민을 위한 비대면 전용상품 출시

'JB 위풍당당 중금리 대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금융시장 디지털 가속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플랫폼 업체(핀다, 카카오페이 등) 및 광고채널과 연계해 중·서민을 위한 비대면 전용 신상품 JB 위풍당당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도내 중·서민을 위한 전용상품을 출시해 타은행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꾸준한 지원을 해왔으며, 이번에 그 채널을 비대면으로까지 적용해 고객의 편의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에 출시한 'JB 위풍당당 중금리 대출'은 핀다, 카카오페이 등 비대면 전문 플랫폼 업체 및 광고채널 등을 통해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대출문턱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주요 대출대상은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만 25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으로 급여소득자의 경우 현 직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대출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JB 위풍당당 중금리 대출은 대출심사에 필요한 소득증빙서류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핀테크 기술(스크래핑)을 적용해 무서류, 무방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 연체없이 성실상환하는 고객에게 최대 1.00% 우대금리를 적용, 본인명의의 주거용 부동산 및 차량을 소유한 고객에 한해 추가한도를 부여하는 등 은행 방문이 어려운 중·서민고객에게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그리고 편의성까지 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주민참여 예산 공모중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을 공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는 전북개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올해 및 내년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작

년에 이어 계속 시행되고 있다. 공모 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역개발, 주거복지 및 사회공헌분야 등 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공공사업으로, 공사 사업범위에 부합하는 사업 등이며 현금·현물 등 단순 지원 등의 사업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b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로 닭고기 소비 3.6% ↑

10가구 중 7가구, 주 1회 이상 소비... 인터넷 구매 늘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닭고기 소비 실태 및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소비와 외식 소비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닭고기 연간 소비량은 2017년 조사보다 1.2kg 늘어난 15.7kg으로 나타났다. 닭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약 70.8%였다. 이는 2017년 대비 5.6%p, 2014년 대비 18.2%p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닭고기 소비 빈도가 꾸준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

인이나 1인 가구 등 성인의 약 56.3%가 주 1회 이상 집밖에서 외식으로 닭고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에서 닭고기를 구입할 때 우선하는 기준은 신선도(63.6%)라고 답했고, 가격(39.9%), 육질(36.9%), 유통기한(29.1%) 등이 뒤를 이었다. 닭고기 부위별로 '닭 한 마리(15.4%)'를 소비하겠다는 응답은 2017년 대비 0.6%p 소폭 상승한 반면, '닭 부분육'은 3.8%p 상승한 32.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닭고기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분육(닭다리, 닭봉, 닭날개 등)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맛과 관련해 '등급판정

정보제공(83.7%)'과 '부드러운 육질(74.7%)'을 꼽았다. 신선도 측면에서는 '유통기한 관리(93.5%)'가 가장 많았고, 유통 시 '포장 방식에 대한 개선(95.4%)'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닭고기 소비량이 약 3.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집밖에서 가지 않고 가정에서 닭고기를 배달해 소비한 비율은 11.5% 늘었다. 닭고기 구입처로 2017년 대비 대형 할인점, 기업형슈퍼/일반슈퍼, 백화점, 전통시장 이용률은 줄어든 반면, 인터넷 쇼핑몰 이용은 4.6%p에서 24%로 크게 증가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생산기술을 개발해 닭고기 소비 촉진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여전'

전북농관원, 지난달 7~29일 39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선물용 농축산물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100여개소를 조사해 39개 업소(거짓표시 28, 미표시 11)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터넷쇼핑몰, 배달업 등 통신판매

농식품 위주로 부정유통 개선성이 높은 품목을 사전에 파악한 후 원포인트로 진행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8개 업소는 수사에 감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떡·배추김치 등 농산물가공품이 23건(5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 11건, 쌀 4건, 과일 1건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농관원은 관계자는 "다가오는 진감절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dM NAVER jjctv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